

문화적 상징기호로서의 지폐 디자인 연구

- 세계 11개국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aper Currencies Design as Cultural Symbols

- Focus on Case Studies from Eleven Nations-

주저자 : 정현원 (Hyun Won Jung)

김포대학 생활예술학부 교수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및 개념정의

- 2-1 화폐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 2-2 화폐의 일반적 기능
- 2-3 화폐의 상징적 기능
- 2-4 지폐 디자인의 정의
- 2-5 지폐 디자인의 요소

3. 분석대상의 일반적 사항

- 3-1. 권종
- 3-2. 발행년도

4. 지폐 디자인 특성 분석

- 4-1 크기
- 4-2 색채
- 4-3 점자체계
- 4-4. 디자인 소재

5. 국가별 지폐 디자인의 상징 유형

- 5-1. 국가 주도형
- 5-2. 시민문화 주도형
- 5-3. 자연·작품형
- 5-4. 유럽문화 통합형

6. 종합 분석 결과

7.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要約)

지폐는 물물교환, 가치척도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상징 기호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선진국과 우리나라 지폐를 대상으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문화코드로서 각국의 지폐 디자인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지폐 디자인의 사용성 측면을 권종 수, 크기유형, 색상, 점자

체계의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스위스의 지폐와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지폐 디자인에 표현된 이미지 유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국가 체제 구축에 공헌한 인물을 주요 소재로 등장시켜 '국가주도형' 문화를 나타낸다. 반면에 유럽 국가는 예술가와 과학자, 그리고 여성 인물 등을 주요 소재로 선정하여 남녀평등의식이 반영, '시민문화 주도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의 지폐는 작품형 소재를 사용하고, 화려한 색채,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개성적인 구성 등으로 지폐 디자인을 하나의 시각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폐 디자인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지폐 디자인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문화 디자인의 관점에서 각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주요 매체로서 지폐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Paper currency is a cultural symbol sign representing identity of a nation as well as a tool of barter system and a measure of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gn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pattern of the paper currencies of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and to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age type of each nation as a cultural code. The results show that 1) the usability of paper currency design was evaluated by denominations, size type, color, braille system and the paper currencies of Switzerland and EU were judged superior to those of the other countries. 2) The national Image type represented paper currencies was classified as 'state oriented type' and 'culture & art oriented type'. The countries of Korea, U.S.A, Japan etc. have on the paper currencies the ruling class who contributed to organizing the national system foundation emphasizing their nationalism. In the case of European countries, their paper currencies reveal a variety of citizen who have contributed to art, science, music, architecture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and this fact puts an emphasis on egalitarianism and equality of both genders and importance of cultural art. 3) Paper currency design of Switzerland, Netherlands, France, U.K. was visualized as an art work with utilization of work-type subject, brilliant color, CG technique, unique layout etc. This study provides us with a valuable opportunity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paper currencies design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world's advanced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be a resource material for new paper currency design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paper currencies representing a national image as a cultural design.

(Keyword)

Paper Currency Design, Cultural Symbol, Identity, Imag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화폐는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문화적 산물이다. 화폐는 물물교환을 위한 삶의 수단이며 부(富)의 가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집단 내의 공유된 감정들이 만들어낸 관계 방식과 사고의 농축된 표현이다. 또한, 세계가 일일생활권 안에 있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화폐의 개념은 단순한 물적 가치의 척도를 넘어서 각 국가의 문화가 축약된 문화적 표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¹⁾ 그리고 반복되는 상징은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로마의 금화에 황제의 얼굴과 문양이 새겨져 있듯이, 각 국의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표현되어 있다. 근대적인 화폐는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는 근대국가의 형성 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화폐 디자인을 국가의 상징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세기 중반 비서방 세계에 속한 수많은 제3세계의 독립국들이 출현하면서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²⁾ 화폐는 주권국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신용도의 척도이자 확실한 국가 경제 통합의 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화폐는 위조방지를 위한 최첨단 기술력이 적용된 결정체로 국가 경제의 실상을 증언하기도 한다. 화폐제조에는 여러 첨단기술과 용자·잉크·인쇄, 나아가 자국 문화 역량의 최적 조합이 빚어내는 정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 디자인은 그 나라의 최첨단의 기술력을 비롯하여 조형감각, 가치체계가 시각화되어 나타난 자국 문화와 철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절하), 고액권 발행, 위조방지를 강화한 신권발행 등의 새로운 화폐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폐 디자인의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화폐 디자인이 한 국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문화코드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폐 디자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다른 선진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폐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각 국가의 지폐 디자인이 그들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기호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보와 지식은 세계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표현 매체로서의 지폐 디자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향후 지폐 디자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폐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둘째, 문화코드로서 각 국가의 지폐 디자인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폐 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①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화폐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폐의 종류 가운데 도안소재, 색채, 표현기법 등의 디자인 요소가 잘 나타나있는 지폐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 국가는 선진 G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³⁾와 스위스, 네덜란드, 유럽연합(European Union)⁴⁾, 그리고 우리나라를 선정하였다. 특별히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각 국가의 문화를 상징하는 지폐 디자인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이었고, 이들 국가들의 지폐 디자인의 레이아웃, 소재선정, 표현기법 등이 특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화는 최근 2002년에 발행되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로서 유럽 국가들의 공용 화폐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반영된 특징을 지닌 화폐라고 판단되었기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10개 국가와 유럽연합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총 62종의 지폐를 연구대상의 범위로 하였다.

② 연구방법

가. 자료 수집

각국의 지폐 이미지 자료 수집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인터넷 사이트⁵⁾에서 제공하는 지폐 이미지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타 화폐 관련 사이트, 문헌, 박물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분석 기준 설정

수집된 지폐의 디자인 분석을 위하여 분석 기준 틀을 설정하였다. 지폐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권종, 최신클 발행연도, 크기, 기조색, 도안소재, 위·변조 방지요소 등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지폐 디자인의 요소를 기능적 측면, 상징적 측면, 심미적 측면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고, 하위 분석 항목으로 권종 수, 크기, 색상, 점자체계, 디자인 소재, 색채감성, 표현기법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1)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1964

2) Emily Gilbert and Eric Helleiner, Nation-State and Mone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currency. London: Routledge, 2002, p.97

3) 서방 7개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14%를 차지할 뿐이나, 부(富)에 있어서는 3/5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GNP(국민총생산)는 세계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1인당 GNP는 세계 평균 GNP의 4배에 달한다. (두산세계대백과)

4)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5개국(2004)이 가입됨. (두산세계대백과)

5) 한국조폐공사 (<http://www.komsco.com>)

6) <http://www.komsco.com/currency/korea/overview.asp>

[표 1] 지폐 디자인 분석 기준표

구성요소	세부 분석항목
기능적 측면	군중수, 크기, 색채, 점자체계
상징적 측면 / 심미적 측면	디자인 소재 / 색채감성, 표현기법

다. 자료 분석 및 유형 분류

분석 대상 총 62종 지폐를 [표 1]의 지폐 디자인 분석 기준표에 준거하여 분석하였으며, 색분율과 빈도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라. 종합분석

10개국과 유럽연합의 지폐 디자인을 기능적 측면, 상징적/미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개념정의

2-1. 화폐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교환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발전된 종류의 상호작용이며, 인간이 모든 욕구는 교환을 통하여 '경제'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그리고 교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화폐이다. 화폐는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왔다. 초기의 화폐는 쌀, 밀가루, 소금 등과 같은 물품이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보관이나 운반이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금·은 또는 철(鐵)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폐 역시 거래의 규모가 커져 직접 들고 다니기 어려워졌으며 보관증만으로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오늘날의 지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지폐는 서기 997년 중국 북송(北宋)시대에 발행되어 사용된 교자(交子)라는 지폐이며, 원(元)시대(1271~1368)에는 쿠빌라이 칸에 의하여 금·은·동 모두를 정부가 보관하고 그 보증으로서 지폐를 발행한 뒤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지폐가 널리 통용되었다. 유럽에서는 1640년 영국은 찰스 1세 때 귀금속의 보관증서로 금장(金匠)이 예치증서(Goldsmith's note)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은행권의 모체가 되었다(7).

2-2. 화폐의 일반적 기능

화폐는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 내지 일반적 유통수단으로 정의되며, 예로부터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급수단, 가치의 보장수단이라는 4가지 기능을 가진다(8).

- ① 가치척도 : 화폐는 개개의 상품의 가치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재료가 됨으로써 가치표현의 척도가 된다.
- ② 교환수단 : 화폐의 존재에 의하여, 사람은 팔고자 하는 재와 교환으로 화폐를 획득하고, 그 화폐로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재를 구할 수 있음을 말한다.
- ③ 지급수단 : 화폐가 가치의 척도나 교환수단으로서 사용되면 그것은 곧 장래의 지급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7) 화폐박물관 (<http://www.komsep.ccm/museum/>)

8) 두산세계대백과

있음을 뜻한다.

④ 가치보장수단 : 화폐는 그 자체가 일반적 구매력이므로 화폐보존자는 화폐가 언제, 어떤 재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대가로서 수령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곧 가치보장수단으로서의 직능이며, 화폐가 자산의 한 형태로서 보유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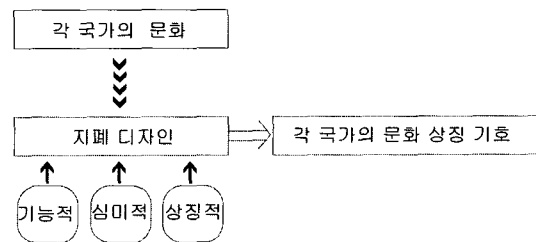
2-3. 화폐의 상징적 기능

화폐는 교환·가치척도로서의 일반적 기능 외에 집단 내의 공유된 감정들이 만들어낸 관계 방식 또는 사고의 농축된 표현인 문화의 상징적 기호로서 의미를 갖는다. 인간들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symbol)과 도상(icon), 지표(index)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 소통한다. 즉,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는 '사물(事物)'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의 의미를 표상(表象)하는, '사물'의 대응품인, 혹은 '사물'의 모사(模寫)인 기호가 항상 매체 구실을 하며, 인간정신의 내부와, 외적(外的)인 것을 연결하는 혹은 매개하는 작용을 한다(9) 따라서, 문화의 인공적 산물인 화폐는 하나의 상징적 기호라 할 수 있으며, 화폐에 나타난 소재, 색채, 문양, 문자, 기술 등의 요소들은 특정 시공간 내의 사회적 행동 양식에 의한 삶의 방식, 가치, 인간 사고 등을 알려주는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코드이다.

2-4. 지폐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의 일반적인 정의는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확장된 관점에서의 디자인 정의는 디자인과 인간 삶(문화)사이의 관계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즉, 디자인을 '이미 존재하는 기호의 해석과 창조' 라고 정의 한다(1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폐 디자인은 각 국가의 삶(문화)을 담고 있는 '상징적 기호'라 할 수 있으며, 역으로 '상징적 기호'를 해석하여 삶(문화)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측면에서의 디자인 정의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지폐 디자인을 [그림 1]에 도식화 한 바와 같이 '각 국가의 문화가 반영된 즉,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 상징적 측면이 반영된 창조물(문화 상징 기호)'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림 1] 지폐 디자인의 개념도

9) 두산세계대백과

10) 김민수: 디자인의 문화적 의미와 역할, 조형, Vol. no.1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6)

2-5. 지폐 디자인의 요소

지폐 디자인 정의에 의해 지폐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능성, 심미성, 상징성의 세가지로 구분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한국조폐공사 및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각국의 문화를 표현하는 매체로서 지폐 디자인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 권종 수, 크기, 색채, 점자, 색채, 표현기법, 디자인 주소재로 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위폐방지 요소¹¹⁾의 디자인적 접목이나 채문(彩紋)¹²⁾, 지문(地紋, background), 레이아웃 등의 디자인 요소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2] 지폐 디자인의 구성요소¹³⁾

구성 요소		세부 항목 요소
기능성	변별력	권종 수, 크기, 색채, 점자, 문자
	내구성	재질 ¹⁴⁾
	보안성	위폐방지 요소
상징성 / 심미성	디자인 소재 / 색채, 표현기법, 문자, 레이아웃, 채문, 지문	

3. 분석대상의 일반적 사항

3-1. 권종

분석대상은 선진 G7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우리나라, 유럽연합의 총 62종 지폐이다. 권종 수는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최소 3종에서 최대 8종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최빈수는 6종이다. 독일의 경우 8종으로 가장 많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3종으로 가장 적다.

3-2. 발행년도

분석대상 지폐의 최근 발행년도는 1960년대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폐(64%)는 1990년~2000년에 발행되었다.

가장 오래된 지폐는 1963년 미국의 1달러 지폐이며, 가장 최신에 발행된 지폐는 유로화 7종(2002년)과 우리나라 지폐 5,000원권(2002년)이다. 보통 신권 발행은 통화개혁, 디노미네이션, 위조방지 등의 이유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 11) 위폐방지 요소는 지폐의 보안성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로 은화, 부분노출은선, 요판, 점자, 미세문자, 무지개인쇄, 앞뒤맞출인쇄, 광간섭무늬, OVI(시변각 잉크), 진주광택 띠 등 이다.
- 12) 채문은 직선, 원, 타원, 나선, 호, 물결무늬 등을 기본으로 하여 폭을 지닌 기하학적 그물형태의 정형 및 비정형 문양이다.
- 13) 한국조폐공사 및 문헌자료의 내용과 지폐 디자인 정의에 의한 3요소(기능성, 상징성, 심미성)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14) 지폐의 재질은 종이(paper)이며, 구성성분은 면 100%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린넨(Linen), 크래프트(Kraft)등이 20~30%로 포함된다. 또한, 지폐의 평균수명은 사용빈도가 높은 소매권의 경우 보통 1~2년이며, 지폐의 수명을 높여주고 위폐방지에 유용한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polymer)가 사용되기도 한다.

[표 3] 분석대상 지폐의 권종 수

	국가	권종 액면가	단위	권종 수
소	대한민국	1,000 / 5,000 / 10,000	Won	3
	일본	1,000 / 5,000 / 10,000	Yen	3
	영국	5 / 10 / 20 / 50	Pound	4
중	프랑스	20 / 50 / 100 / 200 / 500	Franc	5
	미국	1 / 5 / 10 / 20 / 50 / 100	Dollar	6
	캐나다	5 / 10 / 20 / 50 / 100 / 1000	Dollar	6
	네덜란드	10 / 25 / 50 / 100 / 250 / 1,000	Gulden	6
대	이탈리아	1,000 / 2,000 / 5,000 / 10,000 / 50,000 / 100,000 / 500,000	Lira	7
	스위스	10 / 20 / 50 / 100 / 200 / 500 / 1,000	Franc	7
	EU	5 / 10 / 20 / 50 / 100 / 200 / 500	Eur	7
	독일	5 / 10 / 20 / 50 / 100 / 200 / 500 / 1,000	Mark	8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유로화를 사용함

[표 4] 분석대상 지폐의 최신권 발행년도

국가	최신권 발행년도 (권종 액면가)			
	1990년 이전	1990~1994	1995~2000	2000 이후
대한민국	1983(1,000)			2000(10,000) 2002(5,000)
일본		1993(3종)		
미국	1963(1)	1990(10 / 20) 1993(5)	1996(100) 1997(50)	
영국		1993 (5 / 10 / 20) 1994(50)		
프랑스	1981(20)	1993 (50)	1995(500) 1996(200) 1997(100)	
독일		1991(10 / 500 / 1,000) 1992(5 / 20)	1997 (100 / 200) 1998(50)	
이탈리아	1985(5,000 / 10,000)	1990(1000, 2000) 1992(50,000) 1994(10,000)	1997 (500,000)	
캐나다	1986(5) 1989(10, 50)	1990(100) 1992(1000) 1993(20)		
네덜란드	1982(50) 1986(250) 1989(25)	1993(100)	1996(1,000) 1997(10)	
스위스	1976(50) 1977(200)		1995(20) 1996(10) 1997(5 / 100) 1998(500)	
EU				2002(7종)
계	13(21%)	24(38%)	16(26%)	9(15%)



4. 지폐 디자인 특성 분석

4-1. 크기

분석대상 지폐의 크기는 가로길이 112~181mm, 세로길이 61~85mm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작은 크기

의 지폐는 이탈리아의 1,000리라로 112x61mm이며, 가장 큰 크기의 지폐는 스위스의 500프랑으로 181x81mm이다[표 5]. 우리나라와 일본지폐의 가로 길이는 약 150 ~ 161mm의 범위에 있으며, 세로 길이는 76mm로 동일하다. 또한, 권종별 크기가 동일한 미국과 캐나다 지폐의 크기는 각각 156x66mm, 152x72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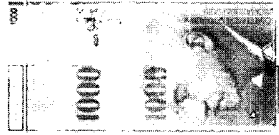
[표 5] 지폐의 크기 비교

소형 지폐	대형 지폐
	
112x61mm (이탈리아)	181x82mm (스위스)

① 비례

분석대상 지폐의 가로, 세로 비례는 1.54:1 ~ 2.45:1의 범위에 있다. 가장 낮은 비례를 가지는 프랑스의 50프랑은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에 비해 약 1.5배 길며, 가장 높은 비례를 가지는 스위스의 1,000프랑은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에 비해 약 2.5배나 길다[표 6].

[표 6] 지폐의 가로, 세로 비례값 비교

낮은 비례	높은 비례
	
1.54:1 (프랑스 - 123x80mm)	2.45:1 (스위스 - 1181x74mm)

② 크기유형

각국 지폐의 크기를 보면 액면가가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지폐의 크기도 커진다. 이렇게 권종별 크기의 차이를 두는 것은 지폐의 변별력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지폐의 국가별 크기 유형을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이 동일형, 가로길이 확대형, 가로·세로길이 확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권종별 지폐 크기에 변화가 없는 동일형은 미국과 캐나다 2개국 뿐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가로길이 확대형이거나 가로·세로길이 확대형이다. 가로길이 확대형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권종은 가로 길이가 5mm씩 확대하는 것에 비해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 더 큰 폭인 10mm, 11mm씩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경우 100프랑과 500프랑 2종이 세로길이가 함께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요 액면가에 대한 크기변화에 따른 변별력을 주려고 한 의도로 파악된다. 세로·가로길이 확대형인 영국과 EU의 권종은 가로 7mm, 세로 5mm씩 양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권종별 변별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7] 국가별 권종 크기 유형

크기 유형	국가	가로 x 세로 (mm)	비례	증가량
동일형	미국	156x66	2.36:1	없음
	캐나다	152x70	2.17:1	
가로길이 확대형	대한민국	151x76	1.99:1	가로 5mm씩 확대
		156x76	2.05:1	
		161x76	2.12:1	
	일본	150x76	1.97:1	가로 5mm씩 확대
		155x76	2.04:1	
		160x76	2.11:1	
	네덜란드	136x76	1.79:1	가로 6mm씩 확대
		148x76	1.95:1	
		148x76	1.95:1	
		154x76	2.03:1	
		160x76	2.11:1	
	프랑스	140x75	1.89:1	가로 10mm씩 확대
123x80		1.54:1		
133x80		1.66:1		
143x80		1.79:1		
153x80		1.91:1		
스위스	126x74	1.70:1	가로 11mm씩 확대	
	137x74	1.85:1		
	148x74	2.00:1		
	170x78	2.18:1		
	170x74	2.30:1		
	181x82	2.20:1		
181x74	2.45:1			
	영국	135x70	1.93:1	가로 7mm, 세로 5mm씩 확대
		132x75	1.76:1	
		149x80	1.86:1	
156x85		1.84:1		
가로·세로 길이 확대형	독일	122x62	1.97:1	가로 8mm, 세로 3mm씩 확대
		130x65	2.00:1	
		138x68	2.03:1	
		146x71	2.06:1	
		154x74	2.08:1	
		162x77	2.10:1	
	178x83	2.14:1		
가로·세로 길이 확대형	이탈리아	112x61	1.84:1	불규칙
		119x61	1.95:1	
		133x70	1.90:1	
		149x70	2.13:1	
		156x70	2.23:1	
	163x78	2.09:1		
	EU	120x62	1.94:1	가로 7mm씩, 세로 5mm 확대
		127x67	1.90:1	
		133x72	1.85:1	
		140x77	1.82:1	
		147x82	1.80:1	
153x82		1.87:1		
160x82	1.95:1			

4-2. 색채

색채는 우리의 시각적 경험 중에서 감성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력을 갖는 디자인 요소로서 각국 지폐의 색채는 권종별 변별력을 높여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며, 각국의 색채감성, 색채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기호로 파악할 수 있다. 각국 지폐의 권종별 색채특성을 [표 8]에 정리한 바와 같이 색상, 명도/채도, 배색효과로 파악하였으며 색채감성에 따른

색채유형을 분석하였다. 색채분석 방법은 각국 지폐 이미지의 색채 정보값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MYK, HSB 값을 추출하였으며, 먼셀 색상환에 대입하였다. 또한, 색채감성은 이미지 스케일(Image Scale)¹⁵⁾에 포지셔닝 하여 색채감성을 유형 분류하였다.

[표 8] 국가별 지폐의 색채특성

색채 감성	국가	색상	명도/채도	배색효과
중후한 (dandy)	미국	G(Dark Green)	저명도/ 중채도	명도대비
	일본	BG / P / GY	저명도/ 중채도	명도대비
은화한 (natural)	대한민국	RP / YR / BG	중명도/ 중채도	유사색 대비
	이탈리아	PR / YR / G / B / P / G / BG	중명도/ 중채도	유사색 대비
우아한 (elegant)	영국	BG / YR / P / R	중명도/ 고채도	유사색 대비
	독일	YR / P / BG / GY / B / YR / PR / YR	중명도/ 고채도	유사색 대비
	캐나다	BG / P / G / R / YR / P	중명도/ 고채도	유사색 대비
화려한 (gorgeous)	프랑스	YR / B / YR / PR / G	중명도/ 고채도	색상대비
	네덜란드	PB / R / Y / YR / RP / BG	중명도/ 고채도	색상대비
	스위스	Y / RP / G / BG / Y / R / P	중명도/ 고채도	색상대비
	EU	BG / R / B / YR / G / Y / P	중명도/ 고채도	색상대비

① '중후한' 이미지

미국과 일본 지폐의 색채는 저명도/중채도의 명도대비 효과를 주며 중후한 색채감성을 가진다. 미국 지폐는 모든 권종의 색상이 모두 녹색(앞면은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 뒷면은 보통 녹색)으로 그린백(greenbacks)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미국의 지폐는 거의 동일한 색상, 동일한 규격을 채택함으로써 권종간 구분의 용이함보다는 통일된 이미지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지폐 또한 색상수가 적어 단조롭고 어둡고 차가운 색채가 주로 사용되어 무겁고 엄격한 느낌을 준다.



[그림 2] 저명도/중채도, 명도대비 - '중후한'

② '은화한' 이미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지폐는 중명도/중채도의 유사색 배색 효과를 주며, 은은하고 은화한 색채 감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지폐의 권종별 기초색은 자주색, 갈색, 청록색 계열의

15) Kobayashi : Colorist, Japan, Kodansha International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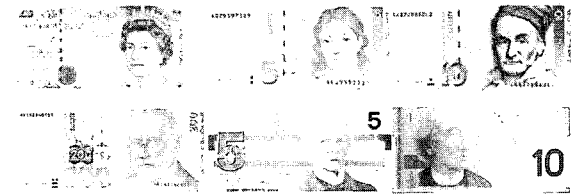
색채이며 권종별 색상차이로 변별력을 주고 있다.



[그림 3] 중명도/중채도, 유사색 대비 - '우아한'

③ '우아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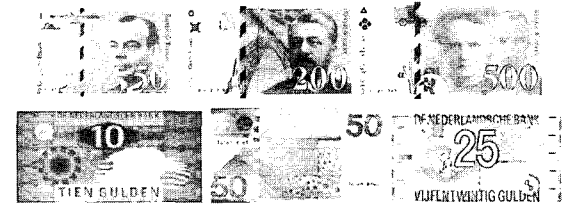
영국, 독일, 캐나다의 지폐는 파스텔 톤의 중명도/고채도의 유사색 배색으로 밝고 우아하고 화사한 색채 감성을 가진다.



[그림 4] 중명도/고채도, 색상·유사색 대비 - '화려한'

④ '화려한' 이미지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의 지폐와 유로화는 풍부한 화면구성과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기법과 더불어 다양한 색상, 중명도/고채도의 색상 대비 배색으로ダイナミック하고 화려한 색채 감성을 가진다.



[그림 5] 중명도/고채도, 색상 대비 - '화려한'

4.3. 점자체계

디자인은 누구나에게 공평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지폐 디자인에 있어서 시력장애자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특정 문자나 도안, 점자표시 부분을 볼록 튀어나오게 요판 인쇄하여 촉감으로도 권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요소는 또한, 위폐방지 역할도 하게 된다. 분석대상 국가 지폐에서 나타난 점자체계는 [표 9]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자체계의 형태는 지폐 앞면 좌측 하단부에 원형의 점(●, ●●, ●●●)으로 표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 도형(○, ◇, □, △)의 형태로 표기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점과 막대의 조합으로 기호를 만들어 표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 소극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은화의 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최근 디자인된 유로화는 유니버설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여 특별한 점자체계를 주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이거나 정상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시각외의 촉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전 권종의 요판인쇄 심도를 강화하였다. 특히 고액권인 200 및 500유로의 앞면에는 여러 개의 선을 심도가 강하게 요판인쇄 처리 하였으며, 또한, 전 권종의 액면 숫자를 크게 기입하여 권종 구별이 용이하도록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국가별 지폐의 점자체계

점자 유형	국가	점자체계
원형	대한민국	● ○ ○ ○ ○
도형	영국	
	프랑스	● ▲ □ ○
	스위스	
기호	독일	: = ≡ ≡ ≡ ≡ ≡ ≡ ≡ ≡ ≡ ≡
은화 형태	일본	작은 고리모양(○)
	네덜란드	X모양
유니버설 디자인	EU	심도 높음: 요판인쇄, 액면 숫자를 크게 함

4.4. 디자인 소재

지폐의 디자인 소재는 각 나라의 이념, 철학, 예술, 문화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각 국의 지폐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디자인 소재를 조사하였고, 그 유형을 인물형, 자연형, 건축형, 작품형으로 분류하여 [표 10], [표 1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지폐 앞면의 디자인 소재로는 인물형이 79%를 차지하여 내다수의 국가들이 인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인물을 디자인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업적, 공헌도, 영향력, 시대적 배경 등 연상되는 이미지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인물이 아닌 자연 이미지와 기하학 작품을 주요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로화는 특정 국가를 연상하게 하는 인물형을 배제하고, 유럽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축 양식을 도안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표 10] 지폐 디자인 소재 유형별 분석(앞면)

국가	인물형					자연형	건축형	작품형
	대통령 (왕·수상)	정치인	학자 (사상가)	과학자 (교육자)	예술가			
대한민국	1		2					
미국	4	2						
영국	4							
캐나다	6							
일본		1	1		1			
프랑스				1	4			
독일				4	4			
이탈리아				3	4			
스위스				2	5			
네덜란드						1	1	4
EU							7	
계	15	3	3	10	18	1	8	4
	49 (79%)					(2%)	(13%)	(6%)

한편, 지폐 디자인 뒷면 소재는 [표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폐 앞면의 인물들과 관련된 작품(39%)이나 건축물

(34%), 또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는 자연형(18%), 그리고 인물형(9%)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표 11] 지폐 디자인 소재 유형별 분석(뒷면)

국가	인물형	자연형	건축형	작품형
영국	4			
일본		3		
캐나다		6		
대한민국			3	
미국			6	
EU			7	
프랑스	1			4
독일			2	6
이탈리아	1		1	5
스위스		1	1	5
네덜란드		1	1	4
계	6(9%)	11(18%)	21(34%)	24(39%)

5. 국가별 지폐 디자인의 상징 유형

다음에서는 각 국가별 지폐 디자인의 특성을 상징적 측면과 심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소재로 선정된 인물의 신분, 성격, 업적 등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색채효과, 표현기법 등 시각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폐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국가 이미지 특성을 유형화 하였다.

5.1. 국가 주도형

미국, 일본,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 5개국은 지폐 디자인 소재로는 대통령, 왕, 수상, 정치와 관련된 인물들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적 성격을 미루어 볼 때 이들 국가들은 국가 시스템 구축을 중요시하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주요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 주도형'의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① 미국

미국의 지폐는 [표 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폐의 앞면 중앙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및 미국의 시스템을 설계한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고, 뒷면에는 국회의사당, 백악관, 재무성 청사 등 인물들과 연관된 건물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강력한 미국의 체제 구축과 영토 확장에 기여한 인물들이다. 미국 지폐는 권종 모두가 동일한 크기와 녹색계통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럽의 은행권에 비하여 구도, 색상, 문양 등이 매우 단순하고 보수적이다.

[표 12] 미국 지폐의 디자인 소재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앞	워싱턴 (초대 대통령)	린컨 (16대 대통령)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잭슨 (7대 대통령)	그랜트 (18대 대통령)	프랭클린 (정치인)
뒤	國章	링컨기념관	재무성건물	백악관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
		링컨(16대 대통령)		잭슨(7대 대통령)		

② 일본

일본 지폐 소재는 [표 13]에서와 같이 앞면에는 일본의 명치 유신 근대화에 기여했던 인물들이며, 뒷면에는 자연 이미지를 담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명치문단의 1인자로 아사히 신문의 기자를 거쳐 작가활동에 전념한 일본근대 문학의 대가이며, 니도베 이나조는 국제연맹 사무차관을 역임한 외교관으로 일본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일생을 바쳤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근대화를 선도한 계몽 사상가이자 교육가 언론인으로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이다. 이들은 명치유신 시대의 인물들로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대외지향적이며 각 분야에서 일본의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다. 일본의 지폐는 단순, 간결한 디자인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화폐가 미국 달러화 '그린백'을 모델로 시작된 역사와 관련이 있다.

[표 13] 일본 지폐의 디자인 소재

	1,000엔	5,000엔	10,000엔
앞	나쓰메 소세키 (소설가)	니도베 이나조 (총장)	후쿠자와 유키치 (대학설립자)
뒤	학	후지산, 호수	평(장끼, 까투리)




나쓰메 소세키(소설가) 니도베 이나조(총장)

③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폐는 [표 14]에서와 같이 지폐의 앞면에는 조선 시대의 학문과 조선왕조의 기틀을 세우는데 공헌한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도산서원, 오죽헌, 경희루 등 인물들과 연관된 전통건축물을 담고 있다. 퇴계 이황은 조선 시대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고, 율곡 이이는 성리학자 이면서 조선중기사회에 백성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힘쓴 정치가였다. 또한,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에 한글을 창제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조선 왕조의 기틀을 세운 성군이었다. 이들은 유교문화의 인물들로 학문을 중시하고 조선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들이다. 초상화 기법, 사실적 표현, 전통놀이 도구 투호, 버루, 물시계, 전통문양, 십장생(구름, 물, 산, 사슴, 불로초 등), 태극, 학, 용 등의 소재와 표현기법은 우리나라 전통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 대한민국 지폐의 디자인 소재

	1,000원	5,000원	10,000원
앞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대왕
뒤	도산서원	오죽헌	경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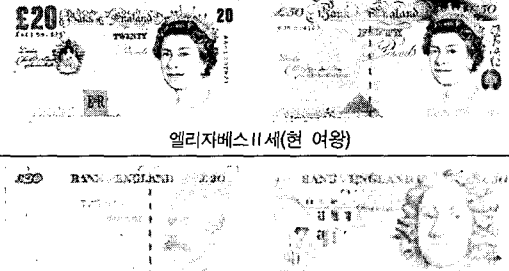
율곡 이이 세종대왕

④ 영국

영국 지폐는 앞·뒷면 모두 인물형이다. 앞면에는 [표 15]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엘리자베스 2세 현 영국 여왕을 독점적으로 담고 있으며, 뒷면에는 최초로 철도를 개척한 스티븐슨, '두 도시 이야기'를 쓴 소설가 디킨즈,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 패러디, 초대 영란은행 총재인 후블란 등과 같은 시민계층의 인물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인물 선정은 왕조 전통성을 존중하면서 시민과 함께 조화하는 영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표현특성은 미소 짓는 여왕의 표정, 파스텔 톤의 맑고 화사한 색채, 장식적인 영문체, 컴퓨터그래픽 터치 등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황실, 영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표 15] 영국 지폐의 디자인 소재

	5파운드	10파운드	20파운드	50파운드
앞	엘리자베스 2세(현 여왕)			
뒤	스티븐슨 (철도개척자)	디킨즈 (작가)	패러디 (과학자)	후블란 (영란은행총재)



엘리자베스 2세(현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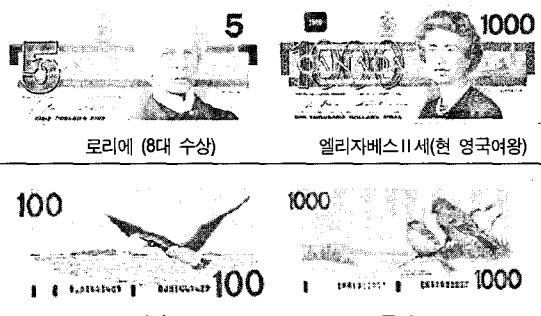
패러디(과학자) 후블란(영란은행총재)

⑤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지폐의 앞면에는 수상, 영국 여왕이 디자인소재로 사용되어 연영방국가이며, 국가주도형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뒷면에는 조류와 풍경 이미지를 부드러운 색조로 표현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한 캐나다를 홍보하고 있다.

[표 16] 캐나다 지폐의 디자인 소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
앞	로리에 (8대 수상)	맥도날드 (초대수상)	엘리자베스 2세 (현 영국여왕)	맥케지 (전 수상)	로버트 보던 (전 수상)	엘리자베스 2세(현 영국여왕)
뒤	총새	물수리	되강오리	흰 올빼미	거위	콩새



로리에 (8대 수상) 엘리자베스 2세(현 영국여왕)

거위 콩새

5-2. 시민 문화 주도형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의 유럽 국가의 지폐 디자인 앞면 소재로는 화가, 음악가, 건축가, 작가, 과학자, 교육자, 의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학자들과 예술가, 그리고 여성인물들이 등장한다. 또한, 뒷면 소재로는 그들 인물들과 연관된 작품이나 재료, 실험도구 등을 내세워 시민 문화에 대한 긍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색상과 구성, 표현기법 등 지폐 디자인의 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프랑스

프랑스 지폐의 등장 인물은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근대화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잔, 철강을 주체적인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근대 건축기술의 창시자 에펠, 방사선과 라듐의 발견으로 2차례의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부처럼 독창적이며 선구자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와 책 속의 주인공 어린왕자, 비행기를 함께 지폐에 등장시키는 등의 표현은 지폐를 통한 문화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예술을 생활화하고 있는 프랑스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표 17] 프랑스 지폐의 디자인 소재

	20프랑	50프랑	100프랑	200프랑	500프랑
앞	드뷔시 (작곡가)	생텍쥐페리 (작가)	세잔 (화가)	에펠 (건축가)	퀴리 부부 (과학자)
뒤	드뷔시	비행기, 어린왕자	정물화	에펠탑	화학실험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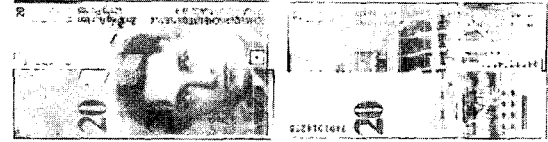
② 스위스

스위스 지폐의 등장 인물 또한 [표 18]에서와 같이 건축가, 작곡가, 조각가, 의사 등 예술가, 학자 중심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그들의 인물과 연관된 작품이나 업적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스위스의 지폐는 세로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람들이 지폐를 썸하거나 주고받을 때 가로방향 보다는 세로방향으로 사용한다는 사용행태를 고려한 측면이며, 구성의 특성을 살려 가로방향의 지폐에 비해 인물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화려한 색채대비효과와 그래픽이션 처리 기법으로 작품형의 지폐 디자인을 보여준다. 기존의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개성이 강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스위스의 창의성을 읽을 수 있다.

[표 18] 스위스 지폐의 디자인 소재

	10프랑	20프랑	50프랑	100프랑
앞	르꼬르비지에 (건축가·화가)	오네게르 (작곡가)	소피 (조각가)	카스텔리 (건축가)
뒤	작품들	음표, 건반, 악기	작품들	St.No교회

	200프랑	500프랑	1,000프랑
앞	페르디난트 류뮤즈 (작가)	폰 할러 (의사·시인)	오구스트 포렐 (의사·생물학자)
뒤	산과호수	인체도해 및식물	개미, 개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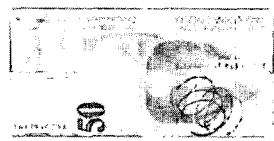
오네게르(작곡가)



음표, 건반, 악기



소피(조각가)



작품들

③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앞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표 19]에서와 같이 교육자, 과학자, 화가, 작곡가 등과 그들의 인물과 연관된 작품이나 업적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자인 몬테소리와 학습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윤곽선을 배제한 개방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색상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단순한 편이다.

[표 19] 이탈리아 지폐의 디자인 소재

	1,000리라	2,000리라	5,000리라	1만 리라
앞	몬테소리 (교육자)	마르코니 (발명가)	벨리니 (작곡가)	볼타 (발명가)
뒤	공부하는 어린이	종기선	오페라무대 장면	볼타 기념관

	5만 리라	10만 리라	50만 리라
앞	베르니니 (예술가)	카라 바치오 (화가)	리피엘 (화가)
뒤	콘스탄틴 기마상	과일바구니	아테네학당



몬테소리(교육자)



공부하는 어린이

④ 독일

독일 지폐 디자인 소재의 특이한 점은 총 8개 권종 중 4개 권종에 낭만주의 여류작가인 폰 아르님, 사실주의 여류시인 드로스테 힐스호프,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 과학자 겸 화가인 마리아 메리안의 여성 인물이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성적인 차별없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민족의 역량이 분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독일의 진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지폐 디자인에서 읽을 수 있다.

[표 20] 독일 지폐의 디자인 소재

	5 마르크	10 마르크	20 마르크	50 마르크
앞	폰 아르님 (여류작가)	가우스 (수학자)	드로스테 힐스호프 (여류시인)	노이만 (건축가)
뒤	브란데부르크 문	각파거리축전기	너도밤나무, 깃펜	성당과 대주교관의계단
	100 마르크	200 마르크	500 마르크	500 마르크
앞	클라라 슈만 (여류음악가)	폴 에를리히 (철학자·의사)	메리안 (과학자)	그림형제 (언어학자)
뒤	피아노와 Hoch 음악학교	현미경과 세포조직	민들레꽃	독일어 사전

폰 아르님(작가)	드로스테 힐스호프(시인)		
클라라 슈만(음악가)	메리안(과학자)		

5-3. 자연·작품형

네덜란드의 지폐의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일체 인물초상을 도안으로 사용하지 않고 꽃과 자연의 이미지, 등대 등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려한 색채와 추상적, 기하학적 구상으로 작품형의 지폐 디자인을 보여준다. 특히, 50굴덴의 해바라기 이미지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반 고흐의 '열 네송이 해바라기'와 '꽃의 나라'를 연상케 하여 인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반 고흐의 자취와 네덜란드의 색채를 느끼게 한다.

[표 21] 네덜란드 지폐의 디자인 소재

	10굴덴	25굴덴	50굴덴	100굴덴	250굴덴	1,000굴덴
앞	기하학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해바라기	기하학적 구성	등대	기하학적 구성
뒤	기하학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해바라기/ 지도, 꽃밭	기하학적 구성	등대/지도	기하학적 구성

해바라기	해바라기/지도, 꽃밭		
등대	등대, 지도		

5-4. 유럽문화 통합형

유로화 지폐의 디자인 소재는 앞서 유럽 국가들의 주요 디자인 소재로 등장하였던 인물 중심의 소재가 아닌 [표 2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유럽 건축 문화의 변천과정을 상징하는 7대 건축문화양식을 형상화 하

여 나타내고 있다. 지폐의 앞면은 건축물의 창문으로 유럽의 화합과 개방성을 의미하며, 뒷면은 유럽대륙의 지도위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다리들을 그려 유럽 연합 시간간 또는 유럽 연합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 및 상호이해를 나타내고 있다¹⁶⁾. 이는 지폐 디자인의 소재선정을 통해 EU 가입 국가들의 개별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보다는 유럽 연합의 단일 정체성을 위한 범유럽적 정서를 지폐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표 22] 유로화 지폐의 디자인 소재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
앞	이오 니아	로마 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	철과 유리의 19세기	20세기 현대건축
뒤	석조 수도교	벽돌 축조다리	아치형의 석조교	중후한 장식이 있는 석조교	난간에 조각이 있는 석조교	교각폭이 넓은 강철제의 다리	근대적인 대형 현수교

고딕양식	아치형의 석조교/지도		
바로크와 로코코	난간에 조각이 있는 석조교/지도		
20세기 현대건축	근대적인 대형 현수교/지도		

6. 종합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폐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과 상징적·심미적 측면에서의 각국 지폐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종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폐의 기능적 측면을 권종 수, 크기유형, 색상, 점자체계의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종합결과를 보면 [표 2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캐나다의 지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적 측면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반면에 스위스와 유로화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지폐 디자인에 표현된 이미지는 각 국가 고유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자인 소재 유형에 따라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우리나라는 국가 체제구축에 공헌한 대통령, 왕, 정치가를 중심 소재 인물로 등장시켜 '국가 주도형' 문화임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였던 화가, 건축가, 음악가 등의 예술가와 과학자, 그리고 여성 인물 등을 주요 소재로 선정하여 남녀평등의식의 반영, 학문의

16) <http://www.komsco.com/currency/world/euro/note.asp>

발전이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문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의 지폐는 작품형 소재사용, 화려한 색채,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개성적 구성 등으로 지폐를 하나의 시각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유로화는 EU 가입국가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재 선정에 있어서 특정국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인물 중심의 소재를 배제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시대별 유럽 건축 양식을 주요 소재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지폐 디자인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는 상징적 매체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을 보여주어 주고 있는 것이다.

[표 23] 지폐 디자인 종합 분석표¹⁷⁾

국가	가능성 사용성 · 식별성				상징성 · 심미성		
	권종 수	크기 유형	색채	점자 체계	도안소재 상징	색채 감성	표현 기법
대한민국	△	○	○	○	왕, 유학자 / 전통, 학문	온화	초상화기법 / 사실적
일본	△	○	△	△	근대화 인물 / 부국강병	중후	초상화기법 / 사실적
미국	○	x	x	x	대통령, 정치인 / 부국강병	중후	사실적
영국	○	◎	○	○	이왕, 시민 / 전통, 시민	온화	회화적 / 그래픽
캐나다	○	x	○	x	수상, 자연 / 국가	온화	초상화 / 그래픽
프랑스	○	○	○	○	예술가, 과학자 / 예술, 학문	화려	회화적 / 컴퓨터그래픽
독일	◎	◎	○	○	예술가, 과학자 / 여승, 예술, 학문	우아	회화적 / 그래픽
이탈리아	○	◎	○	△	예술가, 과학자 / 예술, 학문	온화	회화적 / 그래픽
스위스	◎	◎	◎	○	예술가, 과학자 / 예술, 학문	화려	그래데이션 / 컴퓨터그래픽
네덜란드	○	○	△	△	자연, 건물 / 작품	화려	추상적 / 기하학
EU	◎	◎	◎	◎	건축양식 / 유럽문화	화려	컴퓨터그래픽

7. 결론 및 제언

지폐는 물물교환, 가치척도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상징 기호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선진국과 우리나라 지폐를 대상으로 권종별 크기, 색채, 도안소재 등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으며, 문화코드로서 각국의 지폐 디자인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폐 디자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제안하기로 한다.

첫째, 지폐의 권종 수, 액면가, 크기는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둘째, 지폐의 식별을 위한 권종별 크기, 색상 차이는 적절한가

17) <기준> 권종수 : 3-4개(△), 5-6개(○), 7-8(◎)
 크기유형 : 동일형(x), 가로확대형(○), 가로세로확대형(◎)
 색상유형 : 단색(x), 명도 대비(△), 유사색 대비(○), 색상대비(◎)
 점자체계 : 없음(x), 은화형태(△), 점이나 도형(○), 유니버설디자인(◎)

셋째, 지폐 디자인은 사용자 누구나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컨셉이 적용되었는가

넷째, 지폐의 소재 선정은 자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다섯째, 지폐 디자인의 구성요소, 색채, 문자, 표현기법 등은 문화 이미지를 반영하는데 적절한가

여섯째, 위폐방지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위에 제시된 고려사항 각각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고려사항 가운데 소재 선정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색채, 표현기법 등의 디자인 요소와 더불어 한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지폐 디자인의 현황을 본다면, 유학자 중심의 조선 왕조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초상화 기법, 사실적 표현 등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지폐 디자인이 한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매체임을 본 연구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밝혔다. 과연, 우리나라 지폐 디자인의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하여야 하는지, 국가의 이념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는 무엇인지, 디자인을 국가기반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폐 디자인을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는 보여줄 수 없는지 등 앞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문화를 표현하는 상징적 기호로서 각 나라의 지폐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세계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폐 디자인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지폐 디자인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문화 디자인의 관점에서 각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주요 매체로서 지폐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4)
- Emily Gilbert and Eric Helleiner: Nation-State and Mone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currency, London, Routledge, p.97, (2002)
- Kobayashi : Colorist, Japan, Kodansha International(1999)
- 김민수 : 디자인의 문화적 의미와 역할, 조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Vol. no.19, (1996)
- 박정근 : 화폐 도안과 국가 정체성,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남광현 : 우리나라 은행권의 문양디자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한국은행 : 우리의 화폐, 세계의 화폐, 한국은행, (1996)
- 화폐박물관 (<http://www.komsep.com/museum>)
- 세계화폐사이트(<http://www.numerousmoney.com>)
- 한국조폐공사 (<http://www.komsco.com>)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두산세계대백과